Professionalism in Medicine

- Title: Professionalism in Medicine
- Author: Jill Thistlethwaite, John Spencer
- Publisher: Radcliffe Publishing Ltd, 2008

의학 전문직업성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지만 그리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나라와 문화에 따라 그 정의와 개념에 차이가 있고 또한 개인에 따라 의학 전문직업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Professionalism in Medicine*과 같은 최신 전문서적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의 저자인 J. Thistlethwaite와 J. Spencer는 영국출신의 임상 의사로서 의학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Thistlethwaite는 Maastricht 대학에서 의학교육박사학위를 받고 호주로 건너가서 Sydney 의과대학의 학부, 대학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Spencer도 Newcastle 대학의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부학장으로 학부교육에 힘쓰고 있다.

*Professionalism in Medicine*은 총 12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의학 전문직업성이 영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전문직업성과 인정평가의 관계 그리고 각종 국가 의료기관들의 출현 배경 등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의학 전문직업성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의료 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의료과오, 환자의 안전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의학 전문직업성 중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7장과 8장에서는 직업전문성의 개발과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9장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자율(autonomy)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10장과 11장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학 전문직업성은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장은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의료의 격차, 이타심, 환자들의 요구 등을 다루면서 의료인들이 가져야할 궁극적인 책임감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

Korean J Med Educ 2009 Sep; 21(3): 315-316.
doi: 10.3946/kjme.2009.21.3.315.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Professionalism in Medicine*은 각 장마다 많은 참고문헌의 목록뿐만 아니라 해당 장의 핵심 내용을 핵심 단어와 요약 정리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핵심 내용들을 다양한 표나 그림으로 정리하여서 한 눈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의학 전문직업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참고

서적이다.

허예라,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Yera Hur, Medical Education Center,
School of Medicin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